

# 공공일자리 제공 · 방역수요 대응

### 전북도, 취업 취약계층·실직자 등 대상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 백신접종 지원·생활방역 등 10개 유형 55개 사업에 2833명 채용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일 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돕고, 제공된 공공일 자리를 통해 지급한 방역수요에 대응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환경정비, 재해예방 등

10개 유형에서 총 55개 사업이 진행된다.

채용인원은 백신접종 지원 832명, 생활방역 929명, 밀집지역 정비 321명 등 총 2,833명이며, 사업은 이달부터 2~6개월의 단기 일자리로 제공된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이다.

선발된 인원은 백신접종센터에서 열 체크와 현장접수를 지원하고, 다중 공공이용 시설 등에서 출입자 발열체크와 환경정비에 투입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시·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4월 중에 선발절차를 진행중(예정)에 있으며,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중인 시·군은 전주(4.1~4.9.), 군산(4.1~4.9.), 정읍(4.5~

4.15.), 남원(4.2~4.9.), 완주(4.5~4.16.), 임실(4.5~4.15.), 순창(4.2~4.9.), 고창(3.30~4.7.), 부안(4.5~4.14.) 등이며, 진행예정인 시·군은 익산(4.15~4.22.), 김제(4.15~4.19.), 장수(4.21~4.30.), 진안, 무주는 4월중 예정이다.

이중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공공일자리 제공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여자 모집 등이 잘차기 신속하게 진행돼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축산환경 개선효과 극대화...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추진

전북도가 지역단위 축산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그간 농가 수요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지원되던 퇴비사, 분뇨처리장비 등 가족분뇨처리 관련 8개 사업을 1개 단일사업으로 통합·지원해 축산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다.

시·군이 주체가 돼 축산농가와 협의의 통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도와 농식품부의 종합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전국 공모로 추진되는 만큼 도내 지자체가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31일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군은 농가 수요조사와 지역 여건 분석 등 본격적인 사업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계획과 연계한 사업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군별 축산냄새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 해결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4.7 재·보궐선거 투표소 설치하는 선관위 관계자들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전북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받아 5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가신청은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5월 31일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에 시군구(읍면동사무소)로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도 지급,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총력

전북도,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 계도·단속

전북도가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 효과가 우려되는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실시됐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자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10개 부동산 중개업소 15건에 대해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3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건, 미등

록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날인 누락 1건, 중개보수율표 미계첨 2건, 실거래 허위 또는 미신고 7건 등이다.

해당 시·군은 추가조사 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기간 안내,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금지, 실거래 신고 철저 등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실거래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행위, 기타 공인중개사법규지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추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추진 순항

전북도, 유네스코 서면 평가 진행 중... 하반기 현장 평가 예상

도내 서해안 생태자원의 국제적 위상 확보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계지질공원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2년 유네스코 인증 획득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도는 지난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신청서에 대한 유네스코 관계자 및 국제 학술단체 등의 서면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 운영 중인 탐방 프로그램 자체 평가 등 서해안권 지질공원 운영상황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성공적인 현장 평가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속적인 신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올해 예정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평가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국가 최초 인증(2017년) 후 4년마다 진행되는 재인증 평가에서는 운영 기간동안 실적 평가 등 지질공원 발전여부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국가 브랜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서면 평가에서는 생태·지질자원의 국제적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 성장 잠재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고창·부안군은 서면 심사 이후 올해 하반기에 유네스코 평가위원의 현장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평가 대응에 분주한 모양새다.

다만, 현장평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하반기 현장평가에 대비해, 지질공원 운영 기반 및 탐방 프로그램 정비, 현장 평가 대응계획 작성 및 사전 예행연습 등을 올 상반기 중 집중 수행할 예정이다.

탐방객 안내센터, 지질명소 해설관의 정비와 함께, 외국인 탐방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제공 여부 등 세계지질공원 운영 기반 조성 및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유호상 기자

이외 서해안 생태·지질자원의 국가 브랜드 유지와 활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평가 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평가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제 브랜드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내 청정 생태자원을 알릴 수 있는 관련 브랜드 획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